이강인, 런던 찾아 손흥민에 경솔한 행동 사과

"돌이켜 생각해 봐도 절대 해선 안 될 행동…깊이 뉘우쳐" 직접 사과
함께 찍은 사진 공개한 손흥민 "강인이를 너그럽게 용서해달라" 당부

'탁구게이트'의 중심에 선 축구 대표팀 미드필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영국 런던으로 가 손흥민(토트넘)에게 직접 사과했다고 밝혔다.

사과받은 대표팀 주장 손흥민 역시 이강인을 용서해달라며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이강인은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손흥민과 국가대표팀 동료들, 축구 팬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요르단과의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을 앞두고 손흥민과 물리적으로 충돌한 이후 14일,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서 일주일 만에 이뤄진 사과다.

이강인은 "지난 아시안컵 대회에서 저의 짧은 생각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흥민이 형을 비롯한 팀 전체와 축구 팬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다"는 말로 사과문을 시작했다.

이어 "흥민이 형을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긴 대화를 통해 팀의 주장으로서의 짊어진 무게를 이해하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런던으로 찾아간 저를 흔쾌히 반겨주시고 응해주신 흥민이 형께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흥민이 형에게 얼마나 간절한 대회였는지 제가 머리로는 알았으나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는 그 간절함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던 부분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특히 흥민이 형이 주장으로서 형으로서 또한 팀 동료로서 단합을 위해 저에게 한 충고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제 의견만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강인은 요르단과 준결승전 전날 식사 자리에서 일부 선수들과 별도로 탁구를 쳤다. 손흥민이 제지하려 했지만, 이강인은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둘은 충돌했다. 손흥민이 멱살을 잡자, 이강인은 주먹을 휘둘렀다.

이강인은 "그날 식사자리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다른 선배, 동료들에게도 하나하나 연락해 사과했다는 이강인은 "선배들과 동료들을 대할 때 저의 언행에 배려와 존중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배들과 동료들을 대할 때 더욱 올바른 태도와 예의를 갖추겠다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손흥민이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인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나를 비롯한 대표팀 모든 선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며 함께한 사진을 공개했다. 〈손흥민 인스타그램 캡쳐〉

이강인은 또 "과분한 기대와 성원을 받았는데도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서 가져야 할 모범된 모습과 본분에서 벗어나 축구 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팬들을 향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사과문이 발표된 직후 손흥민도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내고 "그 일 이후 강인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당부했다.

손흥민은 입장문과 함께 이강인과 나란히 서서 미소를 짓는 사진을 게재했다.

손흥민은 "나도 어릴 때 실수도 많이 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좋은 선배님들의 따끔한 조언과 가르침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강인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나를 비롯한 대표팀 모든 선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고 강조했다.

손흥민은 팀 분위기를 다잡는 도중에 이강인과 충돌한 상황을 돌아보며 "나도 내 행동이 잘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질타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팀을 위해 그런 싫은 행동도 해야 하는 게 주장의 본분"이라고 짚었다.

손흥민은 이번 '탁구게이트'로 논란이 격화한 점도 사과했다.

그는 "축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이런 소란스러운 문제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이를 계기로 더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AI 페퍼스, 굴욕의 '23연패'

AI페퍼스가 20일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열린 흥국생명과의 경기를 끝내고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흥국생명에 세트점수 1-3패
남자부 최다 '25연패' 기록 코앞

페퍼스가 23연패 기록을 새로 작성했다.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는 지난 20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2023-2024 V-리그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세트 점수 1-3(14-25 22-25 16-25 15-25)로 패했다. 이번 경기로 페퍼스는 23연패라는 여자부 단일 시즌 및 통산 최다 연패 기록을 또 경신했다.

남자부의 최다 연패 기록도 멀리 있지 않다. 남자부 단일 시즌 최다 연패 기록은 25연패, 통산 최다 연패 기록은 27연패다.

1세트에서 리시브 효율 0%를 기록한 페퍼스는 6개의 범실을 내며 세트를 일방적으로 내줬다.

흥국생명 김연경과 레이나가 각각 5득점씩을 올렸고, 김다솔과 김미연이 각각 3득점씩을 더했다.

페퍼스는 2세트에서 분위기를 바꾸며 세트를 따냈다. 초반 리드를 잡지 못하던 페퍼스는 야스민, 박정아, 필립스가 고르게 득점하며 13-13 동점을 만들었다. 흥국생명에 다시 흐름을 내줬지만 경기 후반 야스민이 활약했다. 21-21에서 야스민의 백어택과 필립스의 속공으로 페퍼스가 리드를 잡았다. 이후 흥국생명에 한 점을 내준 페퍼스는 야스민의 백어택과 박정아의 속공으로 세트 점수를 따냈다. 야스민은 2세트에서 공격 성공률 63.16%를 기록하며 홀로 12득점을 올려냈다.

3세트 초반까지 분위기가 이어지는 듯 했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며 기세를 잡지 못했다. 특히 부상에서 복귀한 흥국생명의 윌로우가 활약하며 페퍼스를 울렸다. 윌로우는 공격 성공률 80%를 기록하며 3세트에서 8득점을 올렸다.

4세트에서도 페퍼스는 무기력하게 세트를 내줬다. 흥국생명 레이나, 김연경, 윌로우가 각각 8득점, 5득점, 4득점을 만들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페퍼스의 리시브 효율은 10%에 머물렀다. 야스민이 양 팀을 통틀어 최다 득점인 28점을 냈지만 팀의 승리로 이어지지 못했다.

한편,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 흥국생명(승점 67·24승 6패)은 한 경기를 덜 치른 현대건설(승점 67·22승 7패)을 제치고 67일 만에 리그 정상 자리를 탈환했다. 두 팀의 승점은 같지만 흥국생명이 승수에서 앞섰다.

페퍼스는 현재 2승 28패, 승점 8점으로 최하위인 7위에 머무르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지난 20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 시로 경기장에서 인터 밀란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에서 인터 밀란의 마르코 아르나우토비치가 팀의 선제골을 넣은 후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 밀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1-0 승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에인트호번-도르트문트 1-1 무승부

이탈리아 인터 밀란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8강행 청신호를 켰다.

인터 밀란은 21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에서 열린 2023-2024 UCL 16강 1차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를 1-0으로 꺾었다.

UCL 8강 진출을 위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 인터 밀란은 내달 14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16강 2차전을 치른다. 인터 밀란은 중원을 장악하고 경기를 주도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유효슈팅을 단 한 개도 허용하지 않으며 단단한 수비를 보여줬다.

인터 밀란은 후반 34분 중원에서 공을 탈취해낸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골대 정면 페널티 지역까지 공을 몰고 들어가 슈팅한 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나왔다. 이때 왼쪽으로 쇄도해 들어온 마르코 아르나우토비치가 세컨드 볼을 놓치지 않고 왼발 슈팅을 날려 선제 결승포를 터뜨렸다.

PSV 에인트호번(네덜란드)과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는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의 필립스 스타디온에서 열린 16강 1차전에서 1-1로 승부를 내지 못했다.

선제골은 도르트문트가 기록했다.

전반 24분 도뉘엘 말렌이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벗겨내고 오른쪽 페널티 지역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날렸고, 가까운 골대 상단을 맞은 공은 굴절돼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다.

에인트호번은 후반 11분 뤼크 더용이 페널티킥을 깔끔하게 성공해 균형을 맞췄다.

추가 득점에 실패한 양 팀은 내달 14일 독일 도르트문트의 지그날 이두나 파크로 장소를 옮겨 16강 2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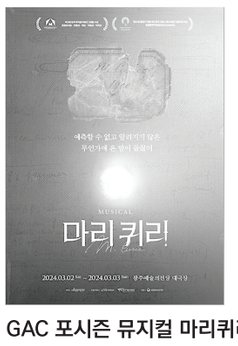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파묘
2관	파묘, 웡카, 애프터: 유혹의 끝
3관	웡카, 건국전쟁
4관	파묘
5관	웡카, 소풍
6관	파묘, [위드키즈]DMZ 동물 특공대
9관	시민덕희
7관씨네커플	바튼 아카데미, 도그데이즈
8관씨네커플	[20주년특가]이프 온리, 도그데이즈, 서울의 봄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포시즌 뮤지컬 마리퀴리
일시 : 2024-03-02(토) ~ 2023-03-03(일) 14:00,18: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3

2024년 광주상설공연(2월)
일시 : 2024-02-03(토) ~ 2024-02-25(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